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보도시점 2025. 8. 19.(화) 17:00 < 8.20.(수) 조간 > 배포 2025. 8. 19.(화)

미국 상원의원과 한미 협력 강화 논의

- 장관, 일리노이·뉴저지 상원의원과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8.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Tammy Duckworth)(민주, 일리노이주), 앤드류 킴(Andrew Kim) (민주, 뉴저지주) 미국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일리노이주(州)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美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뉴저지주 근처에 소재)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이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바,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美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장관과 美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이동욱 (044-203-56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